

투데이 칼럼

‘청동제 범종’ 장수의 격을 높이다

지난 2020년 4월 23일 수요일 장계면 명덕리에 자리한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 발굴 조사 현장은 긴장감이 팽배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천년을 땅속에 묻혀있던 청동제 범종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발굴조사단은 보존팀에 긴급한 연락을 취해 현장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혹시 모를 유물 훼손에 민반의 준비를 하였다.



장영수 장수군수

다행히 청동제 범종은 온전한 상태로 흙 속에서 출토되었다. 범종의 지대는 실로 대단하였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종과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와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쇠물 소리 사람들의 고된 노력으로 인한 거친 숨소리가 이 골짜기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고가 더해져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를 세상에 알렸고 이곳에서 청동제 범종이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 및 예배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사찰 등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이번에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에서

철을 수출했던 무역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당시 이곳에서 역동적으로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와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쇠물 소리 사람들의 고된 노력으로 인한 거친 숨소리가 이 골짜기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고가 더해져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를 세상에 알렸고 이곳에서 청동제 범종이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 및 예배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사찰 등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이번에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에서

출토된 범종은 사할과는 무관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범종이 필요한 철 생산유적지의 관리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범종은 보물적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 이러한 보물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 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범종의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롭다. 범종이 출토되었을 때 당좌(종을 칠 때 망치가 닿는 자리)부분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일부 다른 부분도 범종의 훼손을 위해 물리적 힘을 가했던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범종은 희귀한 것으로 분명 신성시 했을 터인데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곳이 없어지길 바라는 누군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자리한 침령산에서조차 직경 13m의 대형 집수정과 30m 내외의 대형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이 두 곳 모두 인위적인 폐쇄와 화재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여진다. 추정해 보면 이 시점부터 장수의 격과 위상이 조금씩 쇠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지금껏 장수는 가야시대 고대역사의 중심이었던 반파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후백제까지 장수지역의 위상은 고대의 한 축을 구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 군민을 비롯한 전라북도민이면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장수군의 고대문화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 고대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대도역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한다.

사설

코로나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서울과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을 두고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다. 당연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태원 코로나도 그렇지만 부천 물류센터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의 퇴치를 염원하고 있긴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두려울 뿐이다. 진정 되는 듯 하다가도 재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때부터 새로운 확진자들이 늘더니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 클럽등 유흥가에 대한 시선이 끊이지 않은 지금이다.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해 새로운 발병 환자들을 발생시킨 물류센터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지금이다. 발병 환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니 정념 반면 교사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념 그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확진 환자가 하룻밤새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가 코로나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며칠 전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8만6113 명이 등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교육청과 방역 당국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만전을 기하는 자세는 학부모들의 마음과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늘 긴장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서울의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며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이때,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행동은 곤란하다. 코로나 극복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려는 연대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한다. 방역 수칙을 지켜 코로나를 기필코 퇴치하는 당부이다.

노인 친화형 일자리 창출도 생각해야

전북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한다.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고령화 사회가 분명하다. 도내 전체 인구 182만3천9백 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6만5천 명으로 전체 비율 20%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친화형 일자리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지난 수년간 제일 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 인구 유출에 더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젊은층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지역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변에 인구 감소로 도내 읍면 등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이 있었는데 전북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니와 저변에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어찌됐는지 궁금하다. "인구만큼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고 했는데 말이다. 예전에 서울시가 65세 인구 15% 초과를 걱정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안된다. 서울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진정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다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안되는 데 말이다. 우리 지역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2019년부터는 앞에 밝힌대로이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할 말이 있다. 전북도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지도 한테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무슨 말이면 노인들을 위해 자잘한 일자리라도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다. 노인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큰데 그들을 하는 일 없이 세월만 죽이는 인력으로 남비해서는 안되겠다. 전북도는 노인 친화형 일자리 창출에도 마음을 써줘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스트리아 식당, 로봇으로 비대면 음식 배달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한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이 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업원과 고객들 사이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한다.

독자제언

아동학대 예방,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학대행위자들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과 내 자녀니까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못된 처벌 또는 훈육이 학대인 줄 모르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맛을 짓을 했으니 맛도 싸다', '내가 자랄 때는 더 많이 맞고 자랐다'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자녀도 나와 같은 인격체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소중한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할 사회로써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현진 정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